

#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최규일<sup>1</sup> · 남지애<sup>2</sup> · 윤현경<sup>3\*</sup>

<sup>1</sup>충청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sup>2</sup>대구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sup>3</sup>구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Health and Life Quality of Dental Hygienists

Gyu-Yil Choi<sup>1</sup>, Ji-Ae Nam<sup>2</sup>, Hyun-Kyung Yun<sup>3\*</sup>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Chungcheong College,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t. of Dental Hygiene, Taegu Scienc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up>3</sup>Dept. of Dental Hygiene, Gumi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reducing job stress of dental hygienists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job stress, physical, social health, and life quality of dental hygienists.

**Methods:** The questionnaire was collected by the individual self-report method.

**Result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self-development stress, the better the social health.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work stress, the better the psychological health. Third,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work stress, the better the health in the living environment area.

**Conclusions:** Treatment of dental hygienists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working environment and remuneration, and job satisfaction also affects turnover intention.

**Keywords** Job stress, Life quality, Physic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Social health

Received on Jan 11, 2022. Revised on May 04, 2022. Accepted on May 04, 2022.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hk8321@hanmail.net)

### I. 서론

의료소비자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의 향상,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이에 대한 기대 수준과 의식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며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는 고객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의료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1]. 또한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요구하고 있다[2].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COVID-19)로 인하여 감염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는 치과 진료실 환경과 치료 시에 사용되는 고속 회전 기구와 초음파 치석제거기는 다량의 에어로졸을 발생시켜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COVID-19)와 같은 공기매개 질병 전파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3]. 이는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진료 종사자와 환자에게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4].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COVID-19) 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지속되는 확산과 감염에 대한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직무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다[5].

직무스트레스란 직장에서 직무환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조직구성원에게 요구하는 업무능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초과할 때 나타난다[6]. 스트레스 발생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현대인에게 직장은 경제적 생계 수단을 넘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최근 많은 사람이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전문직업은 찾기 힘들다[7].

특히 치과위생사는 영·유아기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구강질환 예방 및 교육,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의 예방 처치가 있으며 이외에도 환자 상담 및 관리, 경영 관련 업무 등 포괄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

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8].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심장질환, 위궤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안, 의욕 상실, 분노 등은 정신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9].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은 직무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회피 현상이 나타나며, 정신 건강 또한 우울해지고 삶의 질까지 저하시켜 개인의 안녕까지 위협받게 된다[10]. 삶의 질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 이상의 좋은 생활을 갖는다는 삶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는 용어[11] 최근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직무 환경적인 요인 및 개인적 요인도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12]. 삶의 질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3].

지금까지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김[14]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고, 김[15]은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만족도 간의 요인에 관해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형과 장[16]은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해 일반치과와 소아치과로 구분하여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윤과 오[17]는 치과위생사의 스트레스 탄력성, 분노 표출,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직무스트레스는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업무 만족도를 저하시키므로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치과위생사

15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2021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치과병원, 치과외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발하여 설문에 동의 후, 응답한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 동의서를 받은 뒤 개별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으로 수집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방법

삶의 질 척도 평가지 WHOQOL-BREF 문항을 총 21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삶의 질(overall QOL) 1문항, 신체적 영역(physical health) 6문항, 심리적 영역(psychological) 5문항, 사회적 영역(socialrelationships) 2문항, 그리고 생활환경 영역(environment) 7문항의 전반적인 삶의 질 외 4개의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abach's  $\alpha$  값은 0.841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측정을 위하여 직무스트레스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문항을 지수로 측정하여 업무량 스트레스 3문항, 자기계발 스트레스 1문항, 대인관계 스트레스 5문항,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abach's  $\alpha$  값은 0.692로 나타났다. 각 영역의 점수를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로 업무량 스트레스 지수는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자기계발 스트레스 지수는 최소 1점에서 5점까지, 대인관계 스트레스 지수는 최소 5점에서 최대 25점까지, 직무만족도 스트레스 지수는 3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측정된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들의 분석은 SPSS version 21.0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근무경력은 ‘1년 미만’ 33명(19.5%), ‘1년 이상 4년’ 73명(43.2%), ‘5년-9년’ 38명(22.5%) ‘10년 이상’ 25명(14.8%)이었다. 직위는 ‘일반 치과위생사’ 120명(71.0%), ‘책임 치과위생사 이상’ 49명(29.0%)이었다. 근무시간은 ‘7.5시간 이내’ 15명(8.9%), ‘7.6~8.5시간 이내’ 81명(47.9%), ‘8.6~9.5시간’ 52명(30.8%), ‘9.6시간 이상’ 21명(12.4%)이었다. 근무 형태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50명(29.6%), ‘치과병원’ 18명(10.7%), ‘치과의원’ 101명(59.8%)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 102명(60.4%), ‘기혼’ 67명(39.6%)이었다. 최종 학력은 ‘전문대 졸업’ 97명(57.4%)으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졸업’ 37명(21.8%), ‘석사’ 23명(13.5%), ‘박사’ 12명(7.1%) 순이었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먼저, 직무스트레스에서는 최종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5$ ). ‘4년제 졸업’이 스트레스가 높았고 다음으로 ‘석사’ 순이었다. 삶의 질은 최종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에서 직위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삶의 질에서는

직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즉 ‘책임 치과위생사’가 ‘일반 치과위생사’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결혼 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삶의 질에 대해서는 결혼 유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5$ ). 즉 ‘기혼’이 ‘미혼’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에서 근무시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서는 근무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모두 근무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1$ ).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자가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질에서는 ‘치과병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과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건강은 향상된다. ( $\beta=-.178, p<0.05$ ) 직무만족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건강은 향상된다. ( $\beta=-.345, p<0.001$ ) 모델의 설명력은 22.4%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20.6%로 나타났다.

## 4.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은 향상된다. ( $\beta=-.263, p<0.01$ ) 모델의 설명력은 27.9%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26.2%로 나타났다.

## 5.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은 향상된다. ( $\beta=-.175, p<0.05$ ) 직무만족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은 향상된다. ( $\beta=-.212, p<0.05$ ) 모델의 설명력은 22.3%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20.4%로 나타났다.

## 6.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된다. ( $\beta=-.201, p<0.01$ ) 자기 계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Period of Service	Less than 1 year	33	19.5
	1 to 4 years	73	43.2
	5 to 9 years	38	22.5
	More than 10 years	25	14.8
Position in the workplace	Dental hygienist	120	71.0
	Senior dental hygienist	49	29.0
Working hours	Within 7.5 hours	15	8.9
	7.6 to 8.5 hours	81	47.9
	8.6 to 9.5 hours	52	30.8
	9.6 hours or more	21	12.4
Working hospital	Universit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50	29.6
	Dental hospital	18	10.7
	Dental clinic	101	59.8
Marital status	Single	102	60.4
	Married	67	39.6
Education Background	College graduate	97	57.4
	University graduate	37	21.9
	Master	23	13.6
	Doctor	12	7.1
Total		169	100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된다.( $\beta=-.239$ ,  $p<0.05$ )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된다.( $\beta=-.222$ ,  $p<0.01$ ) 모델의 설명력은 37.7%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36.2%로 나타났다.

<Table 2> Workload stress and life qua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orkload stress	Life quality
Education background	College graduate	37.65±7.693	65.92± 9.492
	University graduate	41.38±9.203	63.27±15.382
	Master	39.87±6.546	65.87±12.352
	Doctor	35.58±8.306	70.92±17.026
		F=2.723, p=0.046	F= 1.270, p=0.287
English credits	Dental hygienist	38.71±8.293	64.03±11.802
	Senior dental hygienist	38.74±7.426	69.81±11.637
		T= -.028, p=0.978	T= -2.856, p=0.005
Marital status	Single	39.20±8.960	64.25±11.968
	Married	37.51±6.482	68.01±11.742
		T=1.330, p=0.185	T=-2.018, p=0.045
Working hours	Within 7.5 hours	35.19±5.853	60.13±17.439
	7.6 to 8.5 hours	35.90±6.613	65.63±13.208
	8.6 to 9.5 hours	40.15±8.816	66.71± 9.174
	9.6 hours or more	43.53±6.978	67.76± 7.162
		F=6.614, p=0.000	F= 1.420, p=0.239
Working hospital	University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41.48±10.033	61.22±17.090
	Dental hospital	36.89± 4.886	70.89±11.349
	Dental clinic	37.36± 7.096	67.06± 7.724
		F=4.982, p=0.008	F= 6.187. p=0.003

Values were mean±standard deviation

\*p-values were determined by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procedure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ocial health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9.811	.500		19.610	.000
Workload stress	-.061	.044	-.116	-1.387	.167
Self-development stress	-.272	.134	-.178	-2.025	.045
Relationship stress	.044	.031	.118	1.415	.159
Job satisfaction stress	-.199	.050	-.345	-4.014	.000

$R^2 = .224$ ,  $R_{adj}^2 = .206$ ,  $F=11.864(p<.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22.000	1.008		21.830	.000
Workload stress	-.185	.089	-.175	-2.087	.038
Self-development stress	-.250	.270	-.081	-.925	.356
Relationship stress	-.103	.062	-.138	-1.660	.099
Job satisfaction stress	-.246	.100	-.212	-2.464	.015

$R^2 = .223$ ,  $R_{adj}^2 = .204$ ,  $F= 11.764(p<.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physical health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26.502	1.186		22.343	.000
Workload stress	-.341	.104	-.263	-3.267	.001
Self-development stress	-.587	.318	-.156	-1.842	.067
Relationship stress	-.091	.073	-.100	-1.245	.215
Job satisfaction stress	-.220	.118	-.155	-1.868	.063

$R^2 = .279$ ,  $R_{adj}^2 = .262$ ,  $F=15.897(p<.001)$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ealth in the living environment area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33.920	1.411		24.047	.000
Workload stress	-.333	.124	-.201	-2.686	.008
Self-development stress	-1.150	.379	-.239	-3.038	.003
Relationship stress	-.143	.087	-.123	-1.643	.102
Job satisfaction stress	-.405	.140	-.222	-2.891	.004

$R^2 = .377$ ,  $R_{adj}^2 = .362$ ,  $F= 24.783(p<.001)$

&lt;Table 7&gt;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quality

	B	Std. Error	Beta	t	p
(Constant)	97.269	3.676		26.458	.000
Workload stress	-.980	.324	-.230	-3.030	.003
Self-development stress	-2.468	.987	-.200	-2.502	.013
Relationship stress	-.305	.226	-.102	-1.348	.180
Job satisfaction stress	-1.092	.365	-.234	-2.994	.003

$R^2 = .181$ ,  $R_{adj}^2 = .161$ ,  $F = 9.060(p < .001)$

## 7.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 ( $\beta = -.230$ ,  $p < 0.01$ )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 ( $\beta = -.200$ ,  $p < 0.05$ )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된다. ( $\beta = -.234$ ,  $p < 0.01$ ) 모델의 설명력은 18.1%였고, 수정된 설명력은 16.1%로 나타났다.

## IV. 고찰

최근 치과의로 환경은 대형화와 병원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하여, 소비자인 환자의 의료 만족 욕구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맞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강도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요구되고 있다 [18,19]. 직무스트레스는 업무의 질,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상태 및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또한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두통, 소화불량, 피로 등 다양한 신체화를 유발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 건강 관계, 심리적 건강 관계, 생활환경영역 건강 관계 및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 각각의 변인들과 사회적, 심리적, 생활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만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적 건강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도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의원급보다 병원급에서의 업무 분담이 조직적이고 다양하며 복잡한 진료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김과 권[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응답자 과반수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권 등[21]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자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이 높은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구강이라는 한정된 부위에서 진료하므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긴장과 주의력을 요구하며 여기서 가중되는 스트레스와 장시간 일정한 자세와 반복된 동작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이 높게 나타나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비율이 높아지는 윤과 오[17]와 이와 김[2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다. 이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량과 책임에 맞는 권리를 부여하고, 직무요구도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무수행에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와 인정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이외에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요인들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제외한 업무상 스트레스, 자기 계발 스트레스,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과 윤[23]의 연구 결과에서도 치과위생사의 건강 증진행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치과의료 서비스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이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므로 영양 관리, 대인관계, 운동 및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또는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취미 등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되는 한 등[7]의 연구에서는 직위 체계에 따라 팀원이 팀장보다 직무 불안정, 직무 자율, 직장문화 영역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높아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치과 병·의원의 특성에 따라 직위 체계가 다르며, 각 직위에 따른 업무 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별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 계발 스트레스 또한 낮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이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진료업무를 수행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의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할 경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윤 등[2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자신의 업무 수행에 있어 끊임없는 도전과 역량개발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 자아개념 생성되며,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시술에 대한 자신감 증가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향상되는 연구 결과는 윤과 백[12]은 업무 과중과 부적절한 대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아직까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이나 보수에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직무만족은 이직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직을 낮추기 위해 직무만족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치과위생사 일부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의 요인을 파악하여 연구를 시도한 것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근무 형태, 근무경력 등 세분화하여 각 요인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치과병원,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단순무작위 표본추출방법으로 선발하여 169명에게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대한 관련성을 측정하여 직무만족 스트레스를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가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업무상 스트

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심리적 건강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가 생활환경영역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생활환경영역 건강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기 계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직무만족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삶의 질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FERENCES

- Hong SM, Kim HK, Ahn YS: A study on the occupational stress, health status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ist. *J Dent Hyg Sci* 9(3):295-302, 2009.
- Kim JH, Hyun MY, Kim SY: Job stres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of clinical nurses. *Korean J Occup Health Nurs* 18(2):219-31, 2009.
- Choi DR, Kim SH: The study on organization, infection controller, patient infection control of dental clinic in certain areas. *J Dent Hyg Sci* 15(4):399-406, 2015.  
DOI : 10.17135/jdhs.2015.15.4.399
- Szymańska J: Dental bioaerosol as an occupational hazard in a dentist's workplace. *Annals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4(2):203-207, 2007.
- Yoon SR: Correlations between nurses' knowledge of COVID-19 and infection control compliance, resilience, and psychosocial well-being.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20.
- Ko JW, Yom YH: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organizational commitment. *J Korean Acad Nurs* 33(2):265-74, 2003.  
DOI: 10.4040/jkan.2003.33.2.265
- Yoo SY, Choi YA, Park YK, et al: Relationship of Sleep Quality, Physical Stress, Psychological Stress, and Job Stress among Residents. *Korean J Health Promot* 17(1): 9-19, 2017.  
DOI: 10.15384/kjhp.2017.17.1.9
- Han SY, Mun SJ, SS Bae, HJ Noh.: Job stress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18(1):43-53, 2018.  
DOI: 10.1365/jksdh.2018.18.01.43
- Han KS, Lim HS, Park YH, Choi MY, Cha SK, Lee EM:

- Factors influencing job stress of health care providers. *Korean J Stress Res* 20:209-20, 2012.
10. Kim EH, Kim HJ;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onstruction worker's job stress and oral-related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Korean Island* 30(1):85-100, 2018.
  11. Campbell A, Converse PE, Rodgers WL: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1976.
  12. Yoon JW, Park YS: A predictive model of subjective quality life of clinical nurses.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eimyung University* 17(1):34-50, 2013.
  13. Kwon YS: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24): 783-97, 2018.  
DOI: 10.22251/jlcci.2018.18.24.783
  14. Kim HH: The influence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unication on turnover intention for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6(5):69-76, 2021.  
DOI: 10.9708/jksci.2021.26.05.069
  15. Kim J: Factors related between job stress and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7(1):29-36, 2019.  
DOI: 10.33615/jkohs.2019.7.1.29
  16. Hyeong JH, Jang YJ; A study on emotional labor and occupational stress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19(6):1003-13, 2019.  
DOI: 10.13065/jksdh.20190086
  17. Yoon SU, Oh NR: Dental hygienist's stress resilience, anger expression, job satisfaction convergence effect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208-15, 2021.  
DOI: 10.22156/Cs4smb.2021.11.01.208
  18. Joung MS, Kim KJ: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nurses. *Korean J Hosp Manag* 11(4):1-18, 2006.
  19. Choi JH, Choi JS: Effect of mediating variab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tress response among clinical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4(2):114-22, 2014.
  20. Kim YK, Kwon HJ: The influence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ntion for male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16(2):142-49, 2016.  
DOI: 10.17135/jdhs.2016.16.2.12
  21. Kwon YJ, Kang YJ, Seo SH, Kim BK, Park KS: Risk Assessment and Intervention of Ergonomic Risk Factor in Beekeeping. *Journal of Af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44(4):209-19, 2019.
  22. Lee JH, Kim JH: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and Social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400-08, 2012.
  23. Park YN, Yoon SU: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ome local dental hygienist convergence impact on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3):25-33, 2016.  
DOI: 10.15207/JKCS.2016.7.3.025
  24. Yoon MS, Lee KH, Choi MS. A study on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J Dent Hyg Sci* 6(3):147-52, 2006.